

# 전주한옥마을 한복판이 문화장터로

## 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공유일·성수기 경기전 앞 광장에 문화장터 운영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전주의 수공예품과 문화예술품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주 토요일과 공유일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에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 앞 광장을 문화장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문화장터에서는 전주지역 수공예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

시·판매되고,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까지 문화장터에 참여할 지역작가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정원은 약 15명 이내로 전라북도에서 주소를 둔 수공예 작가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지역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지역 작가들을 모집해 문화장터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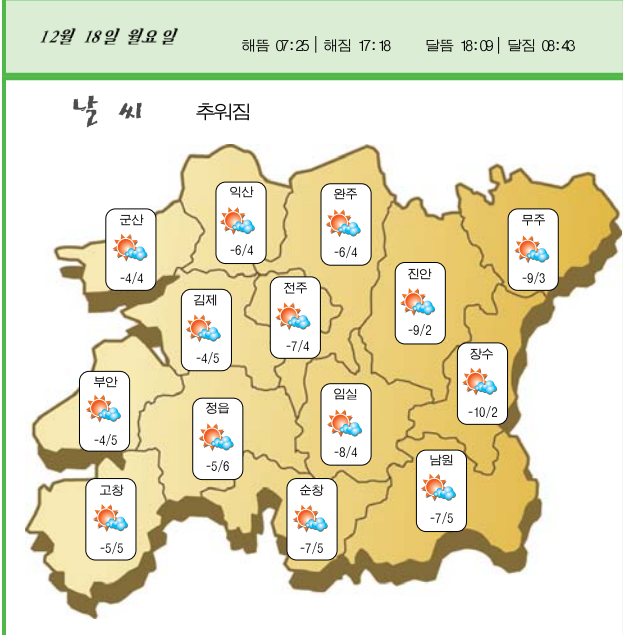
올해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지역작가 15명이 총 116회에 걸쳐 진행된 문화장터에서 한지공예와 짚풀공예, 압화공예,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문화장터를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시켜 전주지역 수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마을을 문화콘텐츠로 채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대표 관광도시이자 문화특별시인 전주의 문화 품격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와 문화를 매개로 한 청년창업자 등에게는 도약의 발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 문화장터에 참가를 원하는 작가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모집기간 내 경기전 광장 옆에 위치한 한옥마을지원과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올해 공동체활동가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 40여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 전주시 공동체활동가 40여명 수료증 수여

전주지역 곳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40여명의 공동체활동가들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올해 공동체활동가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 40여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향후 공동체활동가로 활약하게 될 수료생들이 그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사례발표와 향후 활동 계획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향후 교육생들을 권역별 공동체사업 현장에 투입해 공동체와 행정,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사이의 징검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체 활동가 양성교육은 지난 11월 말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현대사회의 공동체활동의 의미부터 공동체활동가로서의 역할과 태도 등 이론적 수업 △회의기법, 사례별 롤플레이 등 실무교육 △우수지역 견학 등 현장교육 등 3단계 수업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시는 공동체의 기본 개념부터 향후 만들어 나갈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지역의 문제를 진단·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희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장은 "공동체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해소해주며 공동체들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수 있도록 견인역할을 수행할 지원책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동체들에게는 해우소가 되고, 활동가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공동체활동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해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내년도 전북 방과후 학교 방과후 마을 학교 운영계획 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북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 정책 방향을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먼저 2018 방과후학교 설명회가 18일 오후 2시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방과후학교 업체 위력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하기 위한 설명회로, 내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위탁계약 실무 연수가 진행됐다.

이어 22일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에 대한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린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운영실무사 등 40명이 참석, 방과후 마을 학교 운영계획 및 계약실무 연수가 진행됐다.

/김민근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상항극 진행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완주관내 지방공무원 총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완주 학습동아리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청렴학습동아리에서는 상항극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극제목은 '청렴한 하루'로 공직자인 주인공이 친구의 부정청탁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줄거리로, 부정청탁과 신고의무 사항 터치메이를 통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의 정착 유도 및 최근 통과된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안내까지 포함하여 간접체험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근 기자



## 다문화가정 학부모 취학 전 입학설명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14일 2017년 다문화가정 학부모 초등학교 취학 전 예비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취학 절차 및 입학 후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길러주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에겐 생소한 우리나라 초등학교과정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위촉된 전주사립초등학교 이진선 교감은 "생애에 종사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을 보며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학원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전북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 전북지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변화하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였고 학원연합회에서는 김재춘 지회장 권한대행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성명비·이동학대 범죄 경력자 학원 현장 채용 금지, 학원비 옥외광고 표시제 준수, 학원 장부 간소화, 교습소 운영

자 연구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원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교습비 관련 사항을 건의하였고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원연합회의 자율 활동 내실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김승환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학원연합회 관계자를 격려하며 더욱 자율적으로 시행을 갖고 건전한 교육 풍토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민근기자

